천년을 세우다
모연계좌 : 농협 301-0248-0882-41
예 금 주 : 아름다운 동행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현대불교 30
창간 30주년
1994~2024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01호 hyunbulnews.com (불기 2568년 음력 8월 30일)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황룡사 비견될 금당지 경주 흥륜사지서 확인

국가유산청, 9월 26일 흥륜사지 현장서 설명회

과거 '신라의 미소' 출토 사찰
국내 가장 높은 규모 2중 기단
햇볕 막는 차양칸, 발굴로 확인
"신라 사찰 금당 연구에 중요"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경주 흥륜사지 발굴 전경. 황룡사에 비견될 만한 대형 금당지가 확인됐다.

경주 황룡사에 비견될 만한 대형 금당지가 경주 흥륜사지에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경주시(시장 주낙영)와 함께 실시 중인 사적 '경주 흥륜사지'의 발굴조사에서 경주 황룡사의 금당과 견줄만한 규모의 2중 기단에 차양칸을 갖춘 '대형 금당지'를 확인했다"고 9월 25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발굴조사의 성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를 9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최한다.

1963년 1월 21일 사적으로 지정된 경주 흥륜사는 신라 사찰 중에서 가장 일찍 세워진 사찰이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설화를 보면, 신라 13대 미추왕 3년에 성국공주(成國公主)의 병을 고구려의 고승 아도(阿道)가 고쳐 주었는데, 그 보상으로 왕이 사찰 건립을 허락하여 사찰이 세워졌다고 한다. 그는 매우 검소하여 억새를 얽어 움막집을 짓고 이곳에 거처하면서 불도를 강설하니, 마침 하늘에서 꽃이 떨어졌기에 흥륜사라고 했다고 전해진다.

경주 흥륜사는 과거 '신라의 미소' 수막새(보물)가 출토된 사찰로, 최근 발굴조사에서 '영묘지사(靈廟之寺)', '영묘사(靈廟寺)' 등의 명문기와가 출토되면서 선덕여왕 4년(635)에 창건된 영묘사로 보는 견해도 있다. 또한, 지난해 흥륜사지 서쪽 하수관로 설치 공사 관련 발굴조사에서 다량의 고려시대 청동공양구가 출토돼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신라에서 조선시대에 걸쳐 사용된 금당의 기단이 드러났는데, 상·하층의 2중 기단과 내·외진을 갖춘 직사각형의 대형 건물 구조로 확인됐다. 특히, 아래층 기단에서는 햇볕을 가리기 위한 시설의 주춧돌인 차양초석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2중 기단에 차양칸을 갖춘 금당은 경주에서는 황룡사 중금당(584년), 사천왕사 금당(679년)을 제외하고는 확인된 사례가 없을 만큼 경주에서 보기 드문 구조"라며 "신라 사찰 금당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금당 건물은 적어도 3단계 이상의 변화를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창건기인 삼국시대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금당지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연화문 수막새로 보아 그 존재가 짐작되며, 특히 금당 앞 폐와무지(건물에 사용된 기와를 버린 구덩이)에서는 삼국 말~통일 초에 사용된 연화문 곱새기와(지붕마루 끝의 장식기와)가 출토돼 삼국시대에 이미 금당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8세기 전반에는 금당 북동쪽 모서리에 가구식(여러 개의 석재를 짜 맞추어 조립해 만든 모습) 계단석을 설치한 대형 기단 건물로, 9~12세기 사이에는 넓은 차양칸을 갖춘 대형 건물로 변화된 것이 이번 발굴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현재 금당지 내부에서 확인된 내진 성토층은 기단석에서 초석까지 높이가 230cm로, 황룡사 중금당의 기단 높이인 110cm에 비교해도 두 배 이상 높은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단을 갖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경주시와 함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발굴조사의 성과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유적의 진정성 있는 보존과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외로 유출됐다 100년만에 환지본처한 3여래 2조사 사리의 가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길 발원하는 천일기도가 9월 21일 회암사에서 봉행된 가운데 천일기도 동참 불자들이 불조사리를 친견하고 있다.

"회암사, 선명상·불교 중흥 중심으로"

양주 회암사, 9월 21일 불조사리 친견 천일기도 입재

진우 스님 증명법사로 입재식
"선명상 퍼져나갈 공간" 기대
2027년 6월 17일에 회향 예정

100년만에 원 소장처인 회암사로 환지본처한 3여래 2조사 사리를 모시고 그 가치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길 발원하는 천일기도가 시작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입재식 증명법사로 법석에 올라 회암사의 중흥과 선명상 세계화를 발원했다.

양주 회암사는 9월 21일 경내 대법당에서 '회암사 불조사리 친견 천일기도'를 봉행했다.

회암사 불조사리는 석가여래, 정광여래, 가섭여래, 지공 조사, 나옹 조사 등 3여래 2조사의 사리로 일제강점기에 무단으로 반출됐다가 100여 년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보스턴미술관에 소장돼 있었다. 2004년 사리의 존재가 처음으로 불교계에 알려지고 2009년부터 반환논의가 시작되었으나 진척되지 않고 잊혀졌다가 2023년 보스턴미술관 측과의 협상이 이뤄지며 100년 만에 환지본처 할 수 있었다.

교구장 호산 스님은 축사에서 3여래 2조사 사리귀환에 대한 감격을 전하며 회암사가 세계적인 기도처가 되길 발원했다. 호산 스님은 "총무원장스님의 증명법사 법문 인연으로 회암사가 700여 년 전처럼 전국의 중심도량이 되고,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으로서 기도처가 될 수 있길 발원한다"면서 "회암사지를 세계적인 명상센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큰 원력을 갖고 1000일 기도 입재를 하는 만큼, 사부대중 모두가 불교 중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입재식에서는 진우 스님이 증명법사로 나서 법문을 설했다. 특히 진우 스님은 회암사가 선명상 정신을 알리는 중심지가 되길 기대했다. 스님은 "세계 그 어느 사적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최고의 역사적 풍미를 자랑하는 회암사가 최고의 사찰로서 다시 한 번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한다"면서 "세계에 선명상 정신이 널리 널리 퍼져나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입재식에서는 회암사 주지 임명장 수여식도 거행됐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인공 스님에게 임명장을 전달하고 여법한 관리 운영을 당부했다. 이날 주지로 임명된 인공 스님은 티베트 게룩파 종파로 1998년 수계했다. 게룩파 드레퐁사원에서 11년 논장 수학한 후 2009년 봉선사에 입산, 통도사 강원입승에 이어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천일기도 입재식에 동참한 강수현 양주시장은 "수행과 깨달음의 결정체인 성스러운 진신사리를 양주 회암사에 모시게 돼 감격스럽다"면서 이를 계기로 회암사가 불자뿐 아니라 양주 시민들에게도 마음의 안식처를 주는 의지처로서 자리매김하길 기대했다. 환지본처를 위해 애쓴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불교계에 깊은 감사를 전한 강수현 양주시장은 "100년 만에 다시 오신 3여래 2조사 진신사리 친견을 시작으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널리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입재한 천일기도는 2027년 6월 17일까지 이어진다. 100일간 10차에 걸쳐 기도가 이어지며 2차 입재는 12월 30일 봉행된다. 천일기도는 매일 새벽 5시, 오전 10시, 오후 2시 대법당에서 진행되며 누구나 동참 가능하다. 사리는 매주 금·토·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친견할 수 있다. 단체 30명 이상 접수 시 상시 친견도 가능하다.

양주 회암사=임은호 기자

자연의 맛 나눔의 마음 Taste of Nature Heart of Sharing

2024년 제15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사찰의 자연발효음식

2024.10.4(금)~10.5(토)





2024년 제15차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일정표

시 간	10월 4일(금)	10월 5일(토)
07:00~09:00	사찰음식 전시 및 경연대회 세팅	
09:00~09:30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식 및 평가 09:00~10:10 육화당	
09:30~10:00		금비라 졸업식 09:30~10:00 야외무대
10:00~10:30	비빔밥 퍼포먼스 10:20~11:00 대적광전 앞	차명상 ① 10:00~10:30 야외무대
10:30~11:00		차명상 ② 10:30~11:00 야외무대
11:00~11:30	육법공양 11:00~11:30 금탑 앞	육법공양 11:00~11:30 금탑 앞
11:30~12:00	사찰음식 실습특강(성견스님)	사찰음식 실습특강 (법송스님)
12:00~12:30	11:30~12:20 야외무대	11:30~12:20 야외무대
12:30~13:00	차명상 ① 12:30~13:00 야외무대	탁발순례 12:30~13:10 도량 내
13:00~13:30	차명상 ② 13:00~13:30 야외무대	무아차회 13:10~14:10 금탑 앞
13:30~14:00	탁발순례 13:40~14:20 도량 내	
14:00~14:30		시상식 준비 · 공연 리허설
14:30~15:00	무아차회 14:30~15:30 금탑 앞	14:10~15:00 야외무대
15:00~15:30		1부 : 사찰음식 경연대회 시상식
15:30~16:00		2부 : 비천무 공연 / 우담화합창단 공연
16:00~16:30		15:00~16:30 야외무대
16:30~17:00	판매 종료	행사 · 판매 종료

사찰의 발효음식, 김치만들기 체험 : 10월 4~5일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1일 6회)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 주관 |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 운영위원회 | 후원 | 경기도 수원특례시